與 탈당파 23명 워크숍서 뭘 논의했나

"盧대통령 추진 개헌 반대키로"

지난 10일 경기도 용인시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열린 워크숍에 참석한 염동연 의원이 토론회 시작에 앞서 담배를 피우며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열린우리당 탈당파 의원 23명은 지난 10일부터 이틀간 경기도 용인에서 워크숍을 갖고 원내교섭단체 명칭을 '중도개혁 통합신당 추진 모임(통합신당모임)'으로 정하고 주요 정책에 대한 원칙을 세우는 등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특히 탈당파 의원들은 이번 워크숍에서 개헌 반대 입장과 함께 한나라당 집권 저지 목표를 분명히 내세워 '비 노무현-반 한나라당' 노선을 확실히 했다.

오는 12일 교섭단체로 등록하는 통합신당모임은 원내대표에 최용규, 정책위의장 이종걸, 대변인에 양형일 의원을 각각 결정했다. 전병헌 의원은 전략기획위원장, 최규식 의원은 홍보기획위원장이 됐다.

'통합신당모임' 교섭단체 오늘 등록

통합신당모임은 또, 중도개혁세력 대통합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되 통합 과정에서 일체의 기득권과 주도권을 주장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정했다. 이와 함께 앞으로 1개월, 또는 오는 3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활동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향후 통합에 함께 할 여러 정파와 의원들에게 교섭단체에 참여할 기회를 열어주기 위해서라는 명분이다.

통합신당모임은 개헌과 한미FTA 등 주요 이슈에 대한 원칙도 정리했다. 1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양형일 대변인은 "개헌은 취지와 내용에 공감하지만 국민 다수의 지지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발의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정리했다"고 전했다. 이는 사실상 개헌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오는 2월 정기국회 이후 개헌안 발의를 추진하고 있는 청와대의 입지가 더욱 축소될 전망이다.

특히 통합신당모임 의원들은 이번 워크숍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국정운영과 통치 스타일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를 여과 없이 쏟아내 '비노'의 정체성을 확연히 했다. 전병헌 의원은 "국민과 대화하고 이해를 구하려고 하는데 어느 날 (노 대통령의) 큰 소리 한방이 모든 걸 날려 보낸다"고 말했으며, 이강래 의원은 "결심이 설

'非노무현-反한나라당' 노선 설정

때까지는 어느 정도 듣지만 판단이 서면 귀를 완전히 닫아버리는 성향"이라고 지적했다. 우제창 의원은 "대통령이 잘못해서 개혁민주를 다 팔아먹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한미 FTA에 대해 양 대변인은 "개방형 경제를 지향하는 우리 사정에서 주요 국가와 FTA 추진은 불가피하다는 것을 인정한다"며 "다만 미국과의 FTA는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심대하므로 최종안을 보고 비준시 동의 여부를 결정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출자총액제한제는 순환출자규제와 함께 종합적으로

중도세력과 통합때 기득권 포기

검토하며 부동산 분양원가 공개는 입법에 협력하기로 했다. 로스쿨 도입으로 대표되는 사법개혁관련법은 조속한 처리에 적극 협력하며 사립학교법은 이미 제출된 열린우리당의 개정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한편, 통합신당모임은 당초 예정된 결의문 대신 '국민께 드리는 5대 약속'을 발표했다. ▲중도개혁 통합신당의 성공 ▲중산층과 서민이 잘 사는 선진복지국가 건설 ▲정책수립과 입법 활동에 국민의 뜻 최우선 ▲햇볕정책 계승·발전 ▲한나라당 집권 저지라는 목표를 담았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정치권 지각 변동… F1특별법에 '불똥'

전남도 비상대책 마련나서

국회의원·관련 부처 방문 "F1 꼭 필요" 역설

'F1(포뮬러 원) 국제자동차 대회' 개최를 위한 특별법 제정에 정치권 지각변동이 불러온 '불똥'이 떨어져 전남도가 비상대책을 마련하고 나섰다.

전남도와 도의회는 이달 말 열릴 예정인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에 F1특별법 상정을 목표로 이번 주 조기 제정을 위한 활동에 전력키로 했다. 도는 개헌 논란과 열린우리당 국회의원들의 대거 탈당이 특별법 제정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예상해 국회의원과 관련 부처를 집중 설득한다는 방침이다.

전남도는 우리당에서 특별법안을 발의한 유선호 의원이 탈당한 데다 문광위원장인 전북 출신의 조배숙 의원까지 당을 박차고 나가 법안 처리에 상당한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

이에 따라 전남도 간부진이 12~16일 특별법 처리에 참여하는 한나라당 최구식·정종복 의원 등을 만나 2월 상임위 상정협조를 당부할 계획이다. 또 김종철 의장 등 도의회 의장단도 13~14일 국회와 각 정당에 들러 지원을 요청키로 했다.

지난해 국회에 제출된 F1특별법은 현재 국회 문광위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를 벌이고 있으며 지난 주 기획예산처·재경부·문광부·농림부 등 관계자들이 만나 법안 처리에 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도는 오는 7월 F1경주장이 순조롭게 착공되도록 이달 말 국회 문광위에 특별법안 상정한 후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박치경기자 unipark@kwangju.co.kr

교도소 나서는 권노갑·강신성일씨 노무현 대통령 취임 4주년 특별 사면 조치로 권노갑 전 민주당 고문(왼쪽)과 강신성일 전 한나라당 의원이 11일 오전 의정부교도소 정문을 나서며 소감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셋째 아들부터 병역면제"

고조흥 의원 입법 추진

한나라당 고조흥 의원이 셋째 아들부터 병역을 면제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 회기중 발의할 방침이다.

고 의원은 11일 "병역제도 개선과 관련해 가장 시급한 것은 군복무 단축보다는 안보를 위협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취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는 일"이라며 "그 방안의 하나로 '3남(男) 이상 병역 면제'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고 의원은 이미 주요 선진국의 자료를 충분히 수집했고, 빠른 시일 내에 동료 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고 의원의 이 같은 제안은 독일의 제도를 본뜬 것으로, 독일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첫째와 둘째 아들이 병역의무를 마쳤을 경우 셋째 아들부터 병역의무를 면제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與 '全大 정족수 채우기' 안간힘

재적 대의원수 2천여명 축소
일부선 적법성 제기할 수도

열린우리당이 14일로 예정된 전당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현재 당 내에선 전대를 제대로 치르지 못할 경우 당이 공중분해될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이 확산된 상태다. 일단 당 지도부는 재적 대의원의 수를 1만2천명에서 1만명선으로 줄였다. 이에 따라 재적 대의원의 과반수인 의결정족수도 당초 6천500명에서 5천명 선으로 내려갔다.

우원식 사무총장 직무대행은 11일 "국회의원이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으로 당선된 후 탈당한 지역을 사고당원협의회로 처리하고, 당비를 내지 않는 등 제대로 활동하지 않은 당연직 대의원의 자격을 박탈해 모두 2천여명 가량을 줄였다"고 말했다.

전대가 평일에 열리는 데다 집단탈당 사태 후유증으로 대의원 출석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점을 감안해 재적 대의원 수 자체를 줄였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지도부가 전대를 '반토막'으로 치르려 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재적 대의원수를 줄이는 방식으로 전대를 성사시키는 것은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않다는 것.

대전시당 위원장인 이상민 의원은 "꼼수를 동원해 대의원 숫자를 줄여박수치면 되는 것이냐"고 반문한 뒤 "전대를 못 열 상황이면 솔직히 고백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관계자는 "반토막 전대라도 치르지 못할 경우 추가 탈당 사태로 당이 사라질 수도 있다"며 "재적 대의원수를 줄이는 것은 적법 절차에 따른 것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우리당은 당내 일부세력이 2·14 전대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전대를 성사시킨 뒤에도 당내 일부세력들이 대의원 출석률 등의 문제를 놓고 전대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것.

한 관계자는 "예전 전대의 경우 지도부 경선투표를 통해 출석 대의원 수가 집계됐다"며 "그러나 2.14 전대에선 경선투표가 없어 출석 대의원의 수를 따로 집계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출석했는지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우리당은 이같은 우려를 감안, 대의원들이 전대 현장에 입장할 때 신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86곳의 부스를 별도로 마련해 전대 출석 대의원 숫자를 둘러싼 논란의 여지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음해·모략·흑색선전 당내서 진행"

이명박, 박근혜 '검증론' 비판

한나라당 대선주자인 이명박 전 서울시장은 11일 "요즘 저를 향한 음해와 모략, 흑색선전이 당 밖으로부터가 아니라 당 안으로부터 조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전 시장은 이날 자신의 블로그(blog.mbplaza.net)에 올린 '당원 동지 여러분께 드리는 글'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도대체 제가 한나라당에 있는 것인지, 열린우리당에 있는 것인지 구분이 안될 정도"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걱정스러운 점은 이런 일이 계속되면 한나라당에 표를 주어야 할 국민이 '잘은 몰라도, 뭔가 있긴 있나보다'라는 오해를 갖게 되는 것"이라며 "그러나 저는 국민 앞에서 어떠한 검증도 당당하게 받을 자신이 있고 준비가 돼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우리 후보가 네거티브에 당할 것을 우려한다'면서 상대보다 한 술 더 떠서 우리 후보를 흠집내는 이율배반의 행동은 없어야 한다"면서 당내 대권라이벌인 박근혜 전 대표 진영에서 내놓은 '당내 검증론'을 정면 비판했다.

이 전 시장이 최근 박 전 대표 진영과 여권에서 자신을 겨냥해 내놓고 있는 '후보검증론' 등 네거티브 공세에 대해 공식 입장을 직접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1.매각물건의 표시 및 매각조건
<경매 1계>

사건번호	물건번호	매각물건: 소재지 및 면적[㎡]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원]	비고
[아파트]					
2006타경 17841	1	서구 내방동 841-9 3층 306호 79.20㎡	아파트	52,000,000 52,000,000	일괄매각. 2006타경45266[병합]
		동소 841-9 지하층 1호 347.08㎡[공유자 문근심 지분 40분의 1전부]	아파트		
2006타경 29110	1	북구 용봉동 405 유창하이리빙맨션 101동 10층 1105호 51.885㎡	아파트	42,000,000 42,000,000	2006타경31328[중복]
2006타경 33218	1	남구 봉선동 127-15 205동 18층 1806호 141.32㎡	아파트	225,000,000 225,000,000	
2006타경 34037	1	광산구 운남동 776-1 운남주공2단지아파트 209동 11층 1104호 49.69㎡	아파트	52,000,000 52,000,000	
2006타경 34631	1	북구 용봉동 405 유창하이리빙맨션 101동 8층 912호 49.725㎡	아파트	45,000,000 45,000,000	
2006타경 34877	1	남구 백운동 46-1 101동 4층 407호 84.42㎡	아파트	80,000,000 80,000,000	2007타경4002[중복]
2006타경 35061	1	동구 운림동 597 11층 1102호 84.91㎡	아파트	95,000,000 95,000,000	
2006타경 35788	1	동구 동명동 207-88 1층 102호 84.99㎡	아파트	95,000,000 95,000,000	
2006타경 36293	1	남구 주월동 81-2 해태아파트 102동 4층 404호 84.96㎡	아파트	105,000,000 105,000,000	
2006타경 38688	1	나주시 송월동 660 송월주공아파트 110동 2층 204호 49.96㎡	아파트	40,000,000 40,000,000	
[단독주택,다가구주택]					
2005타경 43225	1	광산구 본덕동 66-1 486㎡	대	75,161,250 75,161,250	일괄매각
		동소 66-1 93.75㎡	단독주택		
2006타경 35504 2006타경 35511 [중복]	1	장성군 황룡면 월평리 590-4 110㎡ 제시외 창고 등 19㎡	대	112,828,600 112,828,600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포함
		동소 590-4 1층 91.32㎡ 2층 91.32㎡	단독주택		
		동소 590-75 6㎡	대		
[대지/임야/전답]					
2006타경 5251	1	나주시 공산면 남창리 258-5 985㎡	답	13,113,700 13,113,700	일괄매각.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동소 258-6 862㎡	답		
	2	나주시 공산면 동촌리 344 2086㎡ 공부상 면적2,086㎡이나 토지대장상[2001.10.22. 분할]344번지 2,071㎡와344-1 15㎡로 분필	답	11,890,200 11,890,2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2006타경 5251	3	나주시 공산면 백사리 142 694㎡	답	3,955,800 3,955,800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2006타경 18035	1	영광군 대마면 월산리 419-35 3622㎡ 제시외 배나무 318주 부대시설포함,뽕나무 370주 배나무에 포함. 농지취득자격증명요.	답	60,430,000 60,430,000	수목 포함. 지상에 철파이프조하우스 5동 소재.
2006타경 31847	1	장성군 삼서면 석마리 1042-1 2132㎡ 토지위에 매각되지않은 제시외건물 존재.	답	28,782,000 28,782,0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2006타경 31977	1	장성군 장성읍 유탕리 278 742㎡	전	4,452,000 4,452,000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2006타경 32734	1	화순군 동복면 가수리 산226 46711㎡	임야	18,684,400 18,684,400	지상에 분묘소재.
2006타경 33454	1	담양군 대전면 월본리 461-35 529㎡	임야	5,288,000 5,288,000	일괄매각. 지상에 분묘 수기소재.
		동소 461-36 132㎡	임야		
2006타경 37081	1	장성군 서삼면 모암리 392-8 2307㎡	답	17,302,500 17,302,500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2006타경 38251	1	곡성군 목사동면 용봉리 463-1 312㎡ 법정지상권 성립가능성 있음.	대	1,872,000 1,872,000	비매각 제시외 건물있음.
2006타경 38497	1	곡성군 겸면 가정리 718 145㎡	답	2,900,000 2,900,000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2	곡성군 겸면 가정리 751-2 26㎡	답	450,000 450,000	일괄매각. 농지취득자격증명필요
		동소 862-1 24㎡	답		
	3	곡성군 옥과면 죽림리 161 460㎡	전	11,500,000 11,500,000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2006타경 39780	1	북구 양산동 273-11 115㎡[공유자 이강재 지분 2분의 1 전부]	전	8,395,000 8,395,000	현황은 도로
2006타경 40858	1	장성군 북이면 만무리 606 873㎡	답	14,580,000 14,580,000	일괄매각. 농지취득자격증명요. 현재 전으로 사용.
		동소 607 1557㎡	답		
[상가/오피스텔,근린시설]					
2006타경 12273	1	나주시 봉황면 신동리 348-15 3480㎡	전	34,800,000 34,800,0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수목 포함.
2006타경 31472	1	서구 광천동 24-6 73㎡	대	1,367,597,140 1,367,597,140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포함. 유치권 신고 있음.
		동소 25-7 255㎡	대		
		동소 27-6 124㎡	대		
		동소 24-6 음식점,기계실,숙박시설,주차장 1층 224.47㎡ 2,3,4,5,6층 각 199.24㎡ 지하 237.65㎡ 제시외 주차장 등 89.5㎡	근린생활시설		
2006타경 36804	1	북구 우산동 518-165 337.6㎡	대	610,625,870 610,625,870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포함.
		동소 518-165 목욕탕,여관,다방1층 222.39㎡ 2층 214.47㎡ 3층 193.95㎡ 4층 154.53㎡ 지하실 200.43㎡ 제시외 창고등 36.6㎡	근린생활시설		
2006타경 38336	1	서구 금호동 741-1 상가동 1층 105호 44.97㎡	상가	120,000,000 120,000,000	
2006타경 38961	1	서구 매월동 946 자동차부품유통상가 203동 1층 112호 53.0275㎡	상가	110,000,000 110,000,000	
[기타]					
2006타경 28223	1	서구 치평동 1244-3 1778.9㎡	잡종지	5,039,905,920 5,039,905,920	일괄매각. 유치권 신고 있음. 목록 2.건물에 매각되지않는 제3자[임차인]소유의 제시외건물있음
		동소 1244-3 1층 음식점 1260.27㎡ 주차장 131.65㎡ 2층 노래연습장 205.88㎡ 사무소 143.67㎡ 주차장 1042.17㎡ 주차장 3,4층 각 1391.92㎡	자동차관련시설		

● 공고된 부동산의 면적 표시는 실제와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매각조건
①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해야 하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지 아니함으로써 매각이 불허가 될 때에는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이를 배당시 매각대금에 산입한다.

2. 매각기일 : 2007. 2. 27. [화] 10:00
3. 매각결정기일 : 2007. 3. 6. [화] 16:00
4. 매각장소 : 광주지방법원 입찰법정

5.매각방법
① 입찰법정에 비치된 기일입찰표에 사건번호, 물건번호, 입찰자의 성명, 주소, 입찰가격, 보증금액 등을 기재하고 날인하여 매수신청보증과 함께 기일입찰봉투에 넣어 입찰함에 투입하면 됩니다. 매수신청보증은 최저매각가격의 1할에 해당하는 현금, 금융기관 발행의 자기앞수표 또는 경매보증보험증권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입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자의 지분을 명확하게 표시한 공동입찰신고서를 기일입찰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기일입찰봉투의 투입이 완료되면 곧바로 개찰을 실시하여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을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정하고,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최고가매수신고인들만을 상대로 추가입찰을 실시합니다.
④ 최고가매수인을 제외한 다른 매수신고인들의 매수신청보증은 입찰절차가 종결되는 즉시 반환합니다.

6.매각허가 및 대금납부
①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에 대하여 매각결정기일에 매각허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대금지급기한은 통상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로 지정됩니다.
② 지정된 대금지급기한까지 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재매각을 실시합니다. 다만, 재매각기일로 지정된 날의 3일전까지 종전 매수인이 매각대금 및 지연이자, 비용을 납부하면 대금납부로서 유효하며, 따라서 재매각은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7.소유권이전 및 인도
① 매각대금을 납부함으로써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며, 각종 저당권, 가압류 등은 순위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소멸됩니다. 소유권이전등기 및 저당권이나 가압류의 말소등기를 위해서는 국민주택매입필증 및 등록세와 교육세를 낸 영수증을 첨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및 말소등기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그에 따라 법원이 위 등기를 촉탁하여 줍니다.
② 매각대금을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소유자 또는 대항력 없는 부동산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하여 주지 아니하면 법원에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8.주의사항
① 매각된 주택 또는 상가에 최선순위의 저당권이 설정된 날짜보다 먼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친 후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이나, 사업자등록 신청을 마친 임차인이 있을 때에는 그 임차보증금을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② 일반인들의 열람에 제공하기 위하여 매각기일 1주일 전부터 매각물건명세서, 시가감정서, 현황조사보고서 등을 우리법원 민사집행과에 비치하여 열람에 제공하고 있으므로 미리 필요한 정보를 얻으신 후 입찰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③ 특별매각조건의 내용은 매각물건명세서의 열람을 통하여 확인 할 수 있습니다.
④ 입찰법정에 나오실 때에는 기일입찰표의 기재 및 매수신청보증의 반환에 필요하오니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오시기 바라며, 타인의 대리인으로 입찰하려고 하는 사람은 인감증명을 첨부한 위임장을 반드시 기일입찰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⑤ 소유권이전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요구되는 농지의 경우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결정된 후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여야 매각이 허가됩니다. 단, 도시계획확인원등에 의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지 않음이 소명된 경우에는 매각이 허가될 수 있습니다.
⑥ 공고된 물건중에 매각기일전에 집행신청이 취하·정지된 경우, 또는 매각기일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도의 공고 없이 입찰에서 제외됩니다.
⑦ 신문에 공고되는 물건은 최초의 매각기일에 해당되는 물건이며, 속행사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신문공고를 하지 않으므로 우리법원 게시판의 공고나 법원에 비치된 매각물건명세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⑧ 매각대금을 납부하기 전까지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면 입찰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매수신청신고인이 제출한 매수신청보증을 반환합니다.

매각기일 공고의 요지는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주소: http//:www.courtauction.go.kr [법원공고→ 법원경매정보선택]
※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공고내용외의 열람 가능한 정보는 법률상 제공하도록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을 국민편의를 위하여 따로 제공한 것으로서, 혹시 그 중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매각불허가 신청이나 항고, 대금감액신청이나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관심 있는 물건에 관하여는 반드시 법원에 나오셔서 게시된 매각기일의 공고나 비치된 매각물건명세서를 직접 확인하신 후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2007. 2. 12.

광주지방법원 사법보좌관 이미숙